

전남 면단위 이하 2011년부터 모든 초·중생 무상급식

전국 최초로 ... 내년 100명 이하 학교 우선 실시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전남지역 면 단위 이하 전체 초·중학생이 전국 최초로 무상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어촌 교육개선 사업 중 1단계로 내년부터 전교생 100명 이하 초·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단계로 면 단위 이하 초·중학교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우선 2010년부터 전남 도내 100명 이하 초등학교 215개교 1만2천436명, 중학교 121개교 7천110명 등 모두 336개교 1만9천546명에 게 무상급식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도 교육청은 또 빠르면 2011년부터 면 단위 이하 전체 초·중학생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273개교 2만1천752명, 중학교 145개교 1만1천232명 등 418개교 3만2천984명이다. 추가 예산은 88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남도내 전체 초등학교(437개교) 재학생 13만3천471명, 중학교(247개교) 7만5천236명 등 전체 20만 8천707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 경남은 50명 이하 초등학교

학교, 충남은 면 단위 이하 초등학교, 전북은 농·산·어촌 초·중·고(지자체와 1대1 대응투자), 충북은 벽지학교 초·중·고와 면·읍·시 지역 6학년 이하 초등학교 등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전남처럼 면 단위 이하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 혜택을 계획중인 곳은 없다.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최종 목표는 전남도와 협조를 통해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낙후된 전남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짜 총 신기해요” 6일 광주시 북구청에서 열린 ‘2009 민·관·군·경 합동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범행사’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이 전시된 장비를 만져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북구청과 제31보병사단 주관으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천 인공시설물 지양을”

환경운동연합, 폭우 피해 복구 방안 제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6일 광주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방안과 관리대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에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광주천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그 대부분이 인공시설에 집중됐다”며 “이는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생태하천 만들기가 아닌 인공시설물 설치와 포장에 의존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천 복구 대책으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호우 대비책 마련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 반영 ▲보수공사 시 수중분수 등 인공시설 제거 ▲유속을 증가시켜 피해를 가중시키는 콘크리트 포장 지양 ▲행정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하는 합동피해원인 조사팀 구성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이 제안서를 검토한 뒤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만간 광주천 합동점검을 실시, 폭우로 유실된 구간에 대한 보수작업에 착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형 하천은 도시민이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인공시설은 불가피하며 자연 그대로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보수작업은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괴범도 전자발찌

범무부, 최장 10년간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들을 흉악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6분
해질 19시 30분

달돋이 20시 01분
달질 06시 39분

어느새立秋

태풍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온뒤 오후부터 개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 비	24/30℃
목포	흐리고 한때 비	24/28℃
여수	흐리고 한때 비	23/27℃
완도	흐리고 한때 비	22/28℃
구례	흐리고 한때 비	22/30℃
해남	흐리고 한때 비	22/28℃
장흥	흐리고 한때 비	22/28℃
고흥	흐리고 한때 비	22/29℃
순천	흐리고 한때 비	23/29℃
영광	흐리고 한때 비	24/30℃
진도	흐리고 한때 비	22/28℃
전주	흐리고 한때 비	22/30℃
남원	흐리고 한때 비	22/30℃
목포	흐리고 한때 비	22/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보통	경고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3.0~4.0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목포	03:10 15:04	08:22 20:21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3.0~4.0m	여수	09:43 22:12	03:46 15:4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씨						
최저/최고	23/31	23/31	24/31	24/29	23/29	22/31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 학부 605-1114 / 대학원 605-1115

120 빛고를 콜센터

3개월 만에 3만 콜

지난 4월 문을 연 광주시 통합민원 상담센터인 ‘120빛고콜센터’가 개소 3개월 만에 3만콜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상담건수가 3만859건으로, 하루평균

350~39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매달 15% 이상 이용자가 증가했다.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2만6천600여 건은 상담을 통해 즉시 처리됐으며, 4천 200여 건은 민원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민원 결과를 통보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여권 관련 21%, 시내버스 노선 18%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시정일반 7.6%, 교통 불편 신고가 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남도그린투어

제주도 세계 평화의 숲 지정 4주년

2009 Peace Forest Tracking meeting!!

평화의 숲!! 평화의 길!! 트래킹

제주도 세계 평화의 숲 지정 4주년

2009 Peace Forest Tracking meeting!!

평화의 숲!! 평화의 길!! 트래킹

제주도 세계 평화의 숲 지정 4주년

2009 Peace Forest Tracking meeting!!

평화의 숲!! 평화의 길!! 트래킹

제주도 세계 평화의 숲 지정 4주년

2009 Peace Forest Tracking meeting!!

평화의 숲!! 평화의 길!! 트래킹